'초대 공수처장 후보' 판사출신 김진욱·검사출신 이건리

'대한변협 추천' 추천위 전원 찬성
문 대통령 지명 뒤 청문회 등 절차
공수처, 내달 중순 정식 출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8일 추천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퇴장 속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지난 10월 30일 추천위가 발족한지 약 2달만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가 퇴장한 가운데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도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2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으로 후보자로 의결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석훈 위원이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회의에서 추가 추천은 23일 18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쯤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후보자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을 맡았고 국내 최초 특검이라 할 수 있는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의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수사능력도 인정받았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초대 사무차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공익활동을 수행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자의 권력남용이나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를 확립함으로써 법의 지배 원리와 권력간 견제와 균형 등을 구현하는 헌정질서 차원의 문제"라며 "공수처장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개별 사건 수사에 세부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이건리 후보자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으로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복하여 부당하게 수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변호사 개업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패범죄와 척결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 등이 추천사유다.

이 후보자는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과 법 원칙을 준수하며, 직무권한의 남용과 외부의 압력 또는 간섭을 단호히 배제할 것이며 개인적 부패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법조치를, 제도적 부패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며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성실함과 전문성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여 구성원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두달만에… 공수처장 후보 선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민주, 내년 재보선 '범여권 단일화론' 고개

안철수-국민의힘 논의 구체화…열린민주당과 연대 가능성 부상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단일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고, 서울시장 후보군도 고전하면서 진보진영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출마선언을 계기로 후보단일화 논의가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야권 단일화 추이에 따라 우리도 범여권 전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의 다른 관계자도 "선거는 구도"라면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연합해 우리와 1대1 구도를 만든다면, 우리도 범여권 연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언급했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현실화한다면, 진보진영 역시 후보 단일화를 통해 선거전 구도를 유리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선의 전초선 성격을 띤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에 밀린다면 정권재창출 전망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깔려있다.

당내서는 열린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계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 6~7%선에 이르는 열린민주당 지지율도 흡수할 수도 있다. 열린민주당이 최근 당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과) 서울시장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1.8%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전날 출마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진보진영 표분산을 막기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전략적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의원도 열린민주당에 대해 "우리는 결국 하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새 지도부 출범 이후로 민주당과 차별화 노선을 걷고 있는 정의당이 변수다.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독자후보를 내세워 완주한다면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까지 최종 '3자 구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3개월 보름 정도나 남아있고, 그 사이에 여러 변수가 돌출할 수 있다"면서 "상황 전개를 보며 물 흐르듯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문대통령, 변창흠 국토·정영애 여가장관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변 후보자와 정 후보자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나, 각종 자질논란에 휩싸인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재석 26명 중 찬성 17표, 기권 9표로 채택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소병철 "순천, 스마트그린도시 선정…기후변화 선제 대응 발판"

환경부가 지역맞춤형 기후환경 개선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순천이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8일 "환경부로부터 이같이 확인했고,이 사업 선정으로 우리 순천이 기후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순천시의 공모 신청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소통해 오면서 최종평가를 앞두고서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 순천시가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낼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직접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국에서 100곳의 지자체가 공모 신청을 하여 총 25곳이 선정됐으며, 전남에서는 10곳의 시군이 신청해 경쟁을 벌인 끝에 순천시와 함께 강진군, 해남군, 장흥군이 선정됐다.

순천시가 이번에 신청한 사업은 총사업비 104.8억원(국비 60억, 지방비 44.8억) 규모의 '장천동 고가 밑 청수원 조성사업'으로 ▲빗물 순환을 통한 고가도로 미세먼지 저감, ▲철도 주변 방음벽 수직 녹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회재 "다음달 5일부터 여천역에 KTX 4회 추가 정차"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 28일 "내년 1월 5일부터 여천역에 KTX 4회가 추가 정차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여천역에 정차하는 용산~여수엑스포역 전라선 KTX는 주중 20회, 주말 24회로 하루 8편의 KTX가 여천역에 정차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 5일부터 상행 2회(여천 15:05분, 22:02분 출발 열차), 하행 2회(용산 14:40분 출발, 21:50분 출발 열차)가 늘어 주중 24회, 주말 28회 정차하게 된다. 그간은 KTX 막차가 여천역을 정차하지 않아, 막차를 탄 사람들은 여수엑스포역에서 여천까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했으나, 이번 추가 정차로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김회재 의원은 "그동안 지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추가정차를 요구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